

## 생활과 윤리에서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물어보는 유형 풀이법과 연습 문항 with 해설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2. 본 자료는 생활과 윤리의 독해형 문항 中 가장 오답률이 높은 유형인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물어보는 문항의 풀이법과 '평가원/수능 기출 전부 모음' 입니다.

3. 학습법:

- ① 문제 풀이 방법론을 1회독합니다.
- ② 핵심 쟁점 연습문제를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능까지 N회독합니다.
- ③ 수능 시험에 핵심 쟁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면 가볍게 방법론 적용해서 풀어버리고 50점 가즈아아아아!!!!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서술된 문제 풀이 방법론 설명의 저작권은 임수민에게, 기출 제시문과 해설의 저작권은 EBS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 쟁점별 독해 유형

### 1. 유형 소개

이 유형은 특정 쟁점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는 유형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갑 : 찬성 vs 을 : 반대' 구도의 유형이 출제되었지만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갑과 을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인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곤 했다. 이 경향은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까지 이어졌으며, 수능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을 익혀둘 것을 추천한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1 33~42p 참고)

### 2. 유형 해결 방법

보통 이 유형은 갑과 을의 입장이 제시문으로 제시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갑과 을의 의견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리,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각 제시문의 입장을 '주장 + 논거(근거)'로 정리하는 것이다. ⇒ 각 제시문을 단독으로 정리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두 제시문의 입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독해하는 것이다. ⇒ 두 제시문을 특정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

이 두 가지 문제풀이 방법론을 각각 적용해서 유형 연습용 기출문항들을 추가로 풀어보아야 한다. (두 방법을 모두 익혀놓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할 확률이 적다.)

#### 4) 복합 비교형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갑] - 주장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 논거 1: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 주장 2: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논거 1: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 - 주장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 논거 1: ×

- 주장 2: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 논거 1: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 주장 3: 부모는 어린이의 임상 시험 참여를 대리 동의할 수 없다.

- 논거 1: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시험 참가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논거 2: 부모의 대리 동의는 개인적 보상(☹ 부모가 얻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임상 시험만이 정당한가?		○	○
쟁점 B: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
쟁점 C: 부모는 어린이의 임상 시험 참여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가?		○	×

**선지 분석**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 위의 문제풀이 방법 적용 중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의 갑의 주장 2와 을의 주장 3 또는 ‘쟁점별로 분석하기’의 쟁점 C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 갑이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을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란 갑과 을이 토론을 하면서 논하는 중심이 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 토론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을이 마지막에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리 동의에 근거한 임상 시험을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갑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 둘 다 동의할 질문이다. 하지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갑과 을이 하는 토론의 기본 전제로 볼 수 있다. (쟁점 A)

5) 복합 비교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논거 1: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주장 2: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논거 1: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 논거 1: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 주장 2: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해법과 제도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  
 - 논거 1: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돕는다.		○	○
쟁점 B: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과 같은 개인 윤리적 해법이 필요하다.		○	○
쟁점 C: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	○

**선지 분석**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 쟁점 C: 갑과 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쟁점이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 둘 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은 위에서 갑과 을이 언급했듯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른 특수한 사이버 윤리, 응용 윤리가 필요하다. (☞ 현실: 에티켓, 사이버 공간: 네티켓)

★ 출제 유형 예상 : 수능에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과 같이 갑과 을이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선지로는 <보기> ㄱ~ㄹ을 판단하는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토론의 핵심 쟁점 물어보는 문항 연습 문제with 해설>

일단 아래 9평 11번은 독해형 문제다. 핵심 쟁점을 찾는 문항을 자주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핵심 쟁점을 찾는 문제는 패턴이 똑같다. 갑이랑 을이랑 동의하는 지점도 있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충돌하는 지점이 정답이다. 이번 기회에 수능&평가원 기출을 싹 풀고 가자.

단순 독해로도 풀어보고 방법론 2개를 각각 적용해서도 풀어보고 어쨌든 수능에서 이 유형 틀리지 말자. 킬러 주제, 어려운 문제들 다 맞추고 이 핵심 쟁점 독해 문제 틀리면 억울하게 2~3등급 됨. 꼭 수능 전까지 반복해서 풀고 유형 마스터 할 것.

###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11.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만이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을은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는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내용이며, ③, ④는 갑과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내용이므로, 제시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2014학년도 6평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흉악범으로 밝혀진 사람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갑: 그렇기는 하지만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을: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①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인격권 훼손에 해당하는가?
- ②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 ③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 ④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해도 되는가?
- ⑤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

13.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 이해한다.

정답 해설 : 갑은 개인의 인격권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고, 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갑, 을 두 사람 간의 토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도 되는가가 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에 포함된다. 갑, 을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③, ⑤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갑과 을은 모두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는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임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나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 있어 쟁점이란 서로가 동의하는 바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므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④번이라 할 수 있다.

###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을: 기업은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

갑: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을: 그렇지 않아. 기업은 법의 준수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도 해.

- ①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 ③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 ④ 기업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 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파악

**정답 해설 :** ⑤ 제시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토론이다. 갑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합법적인 경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외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기업이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윤리 경영이나 사회 공헌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 ① 갑, 을 모두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점에서 핵심 쟁점이 아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업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은 을의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③ 갑, 을 모두 이윤 추구를 기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족은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등장한 '상상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민족은 고대 이래 혈연, 언어를 공유하는 실체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

갑: 민족은 혈연이나 언어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지에 기초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민족은 '매일 매일의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유도 가능해.

을: 민족은 대대로 이어진 원초적 유대로 결속된 집단이야.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의지대로 민족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 ① 민족은 언제부터 어떤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가?
- ② 민족이 등장한 근대 이후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 ③ 민족의 구성 요소는 근대화 과정에서 왜 변화하였는가?
- ④ 민족 구성원의 의지는 원초적 유대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 ⑤ 민족 형성이 민주주의 발전과 병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7. 민족 개념의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대화는 민족 개념을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민족은 일정한 지역, 언어, 역사, 문화, 혈연 등의 객관적 요소의 공유를 통해 동질감을 갖는 공동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국제적 상호 의존의 증가, 지구촌 사회의 대두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은 혈연 중심의 객관적 요소보다 민족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갑은 후자의 입장이고, 을은 전자의 입장이다. 둘의 쟁점은 민족의 구성 요소와 형성 시기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제시문의 쟁점과 무관한 것들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어린이의 임상 시험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해설 : 갑은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은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사고 능력의 부족으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대리 동의는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험자(어린이) 자신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갑, 을의 주요 토론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은 갑이 제시하는 어린이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사례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③ 갑, 을 모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따른 임상 시험의 허용을 인정하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의 정당화 여부가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모두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토론 쟁점이 될 수 없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20.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방안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악성 댓글에 대해 자율적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에 을은 자율적 규제 외에도 제도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가 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③, ④ 갑과 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이 되지 않는다.
- ⑤ 갑, 을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4. 과학 기술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토론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 을은 과학 기술 정책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갑은 과학 기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은 물론, 직접 참여를 주장하는 반면, 을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은 인정하지만 정책 결정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을은 과학 기술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술 시민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 을은 모두 기술 사회에서의 기술 시민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 ② 갑, 을은 모두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③ 갑, 을의 토론에서 비용 문제는 고려 요소이기는 하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④ 갑, 을 모두 적절한 의사 결정에 의한 기술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19.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이해

정답 해설 : 갑, 을은 모두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유전자 치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유전자 치료 가운데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생식선 치료는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생식선 치료의 허용 여부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에 포함된다고 본다.
- ② 갑, 을은 모두 유전자 치료가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 ③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후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후세대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의 허용 여부가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없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19. 동물 실험에 대한 토론의 핵심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인간 실험은 부당하지만 동물 실험은 필요하며,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을은 동물 실험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반대한다. 갑은 인간 실험은 부당하지만 동물 실험을 정당하다고 보는 반면에, 을은 인간 실험과 동물 실험을 모두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는 갑, 을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 을은 모두 동물 실험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갑, 을은 모두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갑은 동물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에, 을은 동물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라는 표현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 ⑤ 갑, 을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